# 백두산

28호 - 주체91(2002)년 5월 12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 김정일총비서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9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가경림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석상에서 가경림은 **김정일**령도자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강택민의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강택민총서기께 인사를 전하신 다음 가경림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대표단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만찬에는 대표단성원들과 함께 조선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무동화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용순비서들,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장성택제1부부장과 국제부 지재룡부부장, 조선인민군 현철해, 박재경대장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만찬회는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 중국공산당대표단의 숙소를 방문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가경림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대표단의 숙소를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용순,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지재룡이 동행하였다.

**김정일**령도자를 숙소에서 가경림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조선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무동화와 대사관성원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00년 5월 베이징참관시 가경림이 성심성의를 다하여 친절히 안내해 준데 대하여 다시금 사의를 표하시고 그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가경림은 **김정일**령도자께서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표단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 주시고 친히 자기들의 숙소까지 찾아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손님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10일

# 100여개 나라에서 태양절 및 건군절 기념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인류공동의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였다.

로씨야, 뽈스까, 스위스, 몽골, 단마르크, 꼬스따리까, 핀란드, 체스꼬, 예멘, 말따, 요르단, 도미니까, 로므니아, 에꽈도르, 영국, 짐바브웨, 뽀르뚜갈을 비롯한 세계 60여개 나라에서 특별준비위원회, 전국준비위원회, 민족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됨으로써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이 해당 나라 당과 정부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직적성격을 띠고 의의 있게 진행되였다.

캄보쟈, 라오스, 인도네시아, 몽골, 우간다, 팔레스티나, 꾸바, 기네, 중국, 로씨야, 몰도바, 수단, 마다가스까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 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증정하고 두분께 친서와 선물들을 드리였으며 축전과 전문들을 보내여 왔다.

수리아에서는 주석을 디마스끄명예시민으로 추대하고 수도의 카파르 쑤싸구역의 거리를 **김일성**거리로 명명하였으며 에꽈도르에서는 그이께 모로나 싼띠아고주 명예시민증서를, 네팔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까뜨만두시 명예시민증서를 드리였다.

한편 네팔, 인디아, 벌가리아, 로므니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주석의 회고록과 로작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을 출판하였다.

로씨야, 꾸바, 중국, 수리아, 방글라데슈, 요르단, 네팔, 적도기네, 세네갈, 리비아, 꽁고, 에짚트, 말리, 도미니까, 스웨리예, 아르메니야, 에꽈도르, 꼴롬비아를 비롯한 100여개 나라에서 기념집회와 친선모임, 토론회, 강연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900여차에 걸쳐 광범히 진행되였다. 60여개 나라의 250여개 출판보도물들이 세기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찬양하는 특집을 600여차에 걸쳐 조직하였다.

또한 레바논, 라오스, 싱가포르, 에짚트, 방글라데슈, 우간다, 리비아, 적도기네, 기네, 뻬루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들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10일

2 종합
- 인덕정치와 선군정치
- 소개기사 ≪주체사상탑≫
- 원군기풍
- 금강산댐 붕괴위험론에 대한 논평
- 일본의 국회발언은 재침전쟁론리
- 미국이 우리의 ≪종교문제≫에 대하여 떠들어 대는것은 내정간섭시도
-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반통일분자들의 고약한 언동

4 노작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2)

6 세기와 더불어
- 8장 2절 오의성과의 담판 (2)

8 칭송
- 민중의 충복
- 우리 자랑 태양민족이라오
-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9 노동신문
- 백두산3대장군이 키우신 인민방위무력의 불패의 위력

11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부모님의 혁명적인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어

12 한국민족민주전선
- 망국적인 5.10단선 반대투쟁
- 동지애와 동지적 단결은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
- 미국은 테러왕국 (1)

14 투쟁보도
- 대구에도 통일바람
- 이회창 대통령당선, 한국정치 10년퇴보
- 황석영씨, 귄터 그라스와 이달말 방북
- 한총련 수배 교육실습생 연행

15 운동강좌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7)

# 인덕정치와 선군정치

사람들은 옛날부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만민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이상향이라고 동경해 왔다. 이러한 이상향에서 사는 것은 인류의 세기적 염원이다. 인덕정치는 바로 인류의 세기적 염원인 이상향건설을 가능케 하는 정치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북에서 인덕정치의 전통은 일찍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직영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되었다.

한없이 숭고한 인덕을 지니신 주석님은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전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었으며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한 대오의 철석같은 단결의 위력으로 일제를 격멸하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조국이 광복된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이르기까지 50여성상에 달하는 기나긴 영도사를 민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서사시로 엮어오시었다. ≪이민위천≫의 이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류정치사상 처음으로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의 귀감을 창조하신 주석님의 거대한 업적은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으며 인류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다.

주석님께서 그 시원을 열어놓으신 인덕정치는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전면적으로 개화되어 왔다.

인덕이 있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 자신의 정치신조라고 하시며 이북민중과 온 겨레를 사랑과 믿음의 넓은 한품에 안으시고 보람찬 변혁의 길, 애국애족의 길,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오신 분이 경애하는 영수님이시다. **김정일**영수님의 영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조선노동당과 이북정부는 어버이 주석님의 ≪이민위천≫의 이념을 높이 받들고 근로민중의 운명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과 정부로 강화발전되게 되었으며 인덕정치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서 베풀어오신 인덕정치의 위력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힘있게 실증되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조국광복후 일찍이 없었던 엄혹한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선군정치의 새 역사를 펼치시었으며 선군정치와 인덕정치를 다같이 기본정치방식으로 거머쥐고 철저히 구현하여 오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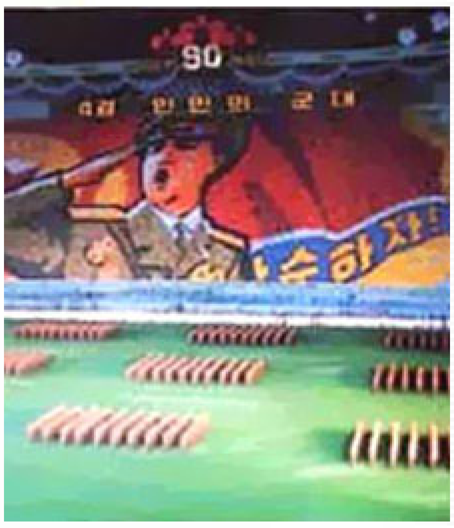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덕정치는 총대와 모순되지 않으며 강한 총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영수님의 철의 의지이다. 여기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이 존재하는한 선군정치로 총대를 강화해야 근로민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인덕정치를 변함없이 실시해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선군정치의 요구를 더 잘 관철할 수 있다는 영수님의 투철한 입장이 구현되어 있다.

경애하는 영수님께서는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당과 정부의 일꾼들이 인덕정치를 철저히 실천해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으며 특히 인민군대안의 지휘일꾼들이 인덕정치를 받드는 데서도 기수가 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여 오시었다.

지난 ≪고난의 행군≫의 나날 이북의 주변환경과 여건은 유례없이 간고했으나 경애하는 영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덕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김정일**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인민군장병들과 민중들의 신념과 의리는 더욱더 굳세어지고 순결해졌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전당, 전군, 전민의 확고한 신념과 순결한 도덕의리의 위력으로 이북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진전을 이룩하시었다. ≪고난의 행군≫의 승리는 선군정치와 인덕정치를 다같이 기본정치방식으로 거머쥐고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의 현명한 영도의 빛나는 승리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광철 - 구국전선
주체90, 7월 21일



부주제군상들

소개기사

## 주체사상탑

주체사상탑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70돌을 맞으며 주체71(1982)년 평양의 중심부에 세워졌다.

탑신의 높이는 위대한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사상이론적 업적을 상징하여 1백50m(백색천연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은 큰 통돌판석 2만5천5백50장을 모두 70단으로 올려쌓았다)와 탑신위에 주체의 빛발을 상징하여 20m높이의 횃불(무려 30여톤)까지 해서 도합 1백70m이다.

탑신의 앞뒤 윗부분에는 ≪주체≫라는 글자를 금빛으로 새겼다.

기단 뒷면의 궁륭식문안에는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보내온 수백개의 진귀한 고급석재들이 축조되어 있는데 거기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인류의 마음이 각 민족문자로 새겨져 있다.

탑신정면에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의 3인군상(높이 30여m, 무게 33t)이 있다. 탑의 뒤에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활력을 보여주는 6개의 부주제군상들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탑의 왼쪽에는 ≪주체의 공업≫,≪철벽의 요새≫,≪무병장수의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만풍년≫,≪배움의 나라≫,≪주체의 예술≫군상들이 있다.

## 원군기풍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으며 전국의 청소년학생들이 좋은 일하기 운동을 벌려 마련한 100대의 ≪소년≫호 자동차와 20문의 ≪청년전위≫호 포를 인민군대에 증정하였다.

이것은 청소년학생들의 애국충정의 발현이다.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여기는 조선에서는 전민이 군대를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대의 애국은 조국보위에 있다는 철리를 체득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군복을 입고 어머니가 섰던 초소에 딸이 서며 도시에서 자란 처녀들이 자진하여 최전연 군관들의 안해로 되고 있다.

군사임무수행중 부상을 당하여 제대된 영예군인들과 가정을 이루는 청춘남녀들과 전쟁로병들과 인민군후방가족들을 적극 내세우고 돌봐 주는 아름다운 미풍은 오늘 선군시대의 하나의 풍조로 되고 있다.

매해 수십마리의 집짐승을 길러 많은 량의 고기와 지성 어린 원호물자를 군대에 보내 주는 원군가정도 늘어 나고 있다.

원군기풍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공고발전되여 온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의 항일투쟁사와 반미투쟁사에는 인민들속에서 발휘된 영웅적인 원군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 져 있다.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 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온 나라에 차넘치는 원군기풍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5월 9일

# 금강산댐 붕괴위험론에 대한 통일연대논평

최근 미 아이코너스 인공사진을 근거로 한 ≪금강산댐 붕괴 위험≫론이 유포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금강산댐 붕괴위험을 전제로 하면서, 평화의 댐 보강공사, 화천댐 현 수위 유지, 신규 댐 건설, 평화의 댐 증축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86년 정부는 이북의 자체 발전시설인 금강산댐 건설을, 북 남침위협론으로 뒤바꾸어 놓고, 반북대결과 국민불안을 조장하며 초등학생 코묻은 돈까지 모금하여 평화의 댐을 건설한 바 있다. 그런데 금강산댐이 전혀 문제가 없자, 국민들사이에서는 우리들이 모금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의문을 제기하며, 과거 분단독재정권의 ≪북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2002년, 남북관계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동결되었다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자≫라는 합의하에 다시 개선되어지고 있는 시점에 금강산댐 붕괴위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통일연대는 정부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 금강산댐 붕괴위험론을 미 위성사진을 근거로 하여 제기한 것이 과연 정당한 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금강산댐이 붕괴 될 위험이 있다면 정부가 이를 대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당국자가 금강산댐 붕괴위험론을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진상파악을 제대로 할수 없는 위성사진뿐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금강산댐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분석이 이어지면서, 위성사진만으로는 정상부 함몰, 하류부 누수, 여수로의 설치여부 및 방류구의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댐의 안전도 평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게다가 건설교통부가 미국 아이코너스 위성사진을 자료로 제출하며, 사태파악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금강산댐 붕괴위험론을 유포시키고, 대책마련 운운하더니, 결국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려 하였다. 이는 결국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무산이라는 결과를 빚었다. 이처럼 정부당국자의 금강산댐 붕괴위험론 발표는 4.5 남북공동보도문을 통해 발표한 남북공동합의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 제기됨으로써, 남북관계를 다시 동결시킬수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일연대는 어렵게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킨 4.5 남북공동합의 이행에 장애를 조성한 건설교통부와 정부당국자는 금강산댐 붕괴 위험논란에 대한 신중치 못한 접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5 남북공동보도문 발표이후, 우리는 다시 어렵게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었다. 우리는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민족통일시대의 경제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실제적인 논의와 실천이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과 정부당국자가, 금강산댐 붕괴위험론을 제기하고, 남북관계진전에따라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시 막혀버렸다.

정부가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4.5 남북공동합의 이행에 장애를 조성한 건설교통부 및 금강산댐 붕괴위험론을 유포시킨 정부당국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4.5 남북공동합의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2/05/11**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 일본당국자들의 국회발언은 재침을 위한 전쟁론리

## 조선중앙통신 논평 - 주체91, 5월 10일

≪아사히신붕≫에 의하면 일본방위청장관 나까따니가 7일 중의원유사시법제특별위원회에서 무력공격사태의 정의에 대해 ≪모든 사태가 대상으로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 일본최고당국자는 ≪자위대≫가 유사시에 무력행사를 할수 있는것은 사실상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로 한정되며 ≪무력공격이 예측될 사태≫ 등에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명백히 밝혔다고 NHK텔레비죤방송은 보도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울려 나온 두 당국자의 말에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일본의 무력사용에 대하여 최고당국자는 일정한 경우로 한정하였다면 방위청장관은 ≪모든 사태≫로 포괄범위를 확대하였다는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아시아나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회에서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유사시법제≫수립과 관련한 법안이 공식적으로 심의되고 있다는것이며 여기에 참석한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이 추구하는 총적목표가 일본의 ≪전시법제≫수립이라는데 있다.

과거 침략전쟁으로 패망한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에 의해 군대와 교전권을 가질수 없게 규정되여 있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유엔에 호소하여 사태를 해결할수 있다고 규정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위대≫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였고 이제는 본격적인 해외침략전쟁에 무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유사시법제≫라는 사실상의 ≪전시법제≫를 만들어 내려고 책동하고 있는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의 국회발언은 부차적인 측면에서 일부 모순점을 나타냈으나 그것이 재침을 위한 전쟁론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에서 ≪평화헌법≫에 배치되는 이러한 책동이 국회를 무대로 당국자들이 주역이 되여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야말로 일본의 평화에 대한 가장 엄중한 위협이며 비상사태라고 할수 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일본의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면 ≪유사시법제≫와 같은 ≪전시법제≫수립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범죄적인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아시아나라들과 인민들사이의 신뢰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5월 10일**

# 미국이 ≪종교문제≫에 대하여 떠들어 대는것은 내정간섭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이 ≪종교문제≫와 결부시켜 우리를 걸고 든것과 관련하여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종교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데서 또다시 우리나라를 ≪종교탄압국≫이라고 터무니 없이 걸고 들었다. 미국이 우리의 종교상황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한것은 늘 해오는 판에 박은 타령으로서 사실상 론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슬람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이 이단시 되고 많은 종교인들이 당국의 항시적인 감시와 박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종교문제≫에 대하여 떠들어 대고 있는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로골적인 도발이며 내정간섭시도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미국은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5월 10일**

# 북남경협회의가 열리지 못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반통일분자들

남조선의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이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가 개최되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당치 않게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일부 ≪로동신문≫은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것은 남조선의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는 자의 사대굴종적이고 매국반역적인 망발에 대한 남측의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패당은 안목도 없고 세기가 바뀐 오늘에도 낡은 대결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해 헐담하는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다.

반통일무리들이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며 우리를 자극하는 망발을 하는것은 그들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표현이며 4.5공동보도문리행을 가로 막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대결을 고취하는 자들은 력사와 민족의 규탄, 배격을 면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5월 10일**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2)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 주체80(1991)년 5월 5일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은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은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이 처한 사회역사적 조건은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혁명을 시작하였으며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전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실정에 맞는 처방은 그 어디에도 밝혀진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건설의 생소한 길을 기성이론을 가지고서는 개척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 립장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이론을 독창적으로 내놓고 체계화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론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창시하신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전략전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이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완성된 공산주의혁명이론입니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혁명이론과 전략전술이 앞길을 밝혀주고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밀고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이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것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혁명과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제국주의강적과 첨예하게 대치되여 있고 낡은 사회와 선행시대로부터 락후와 빈궁, 파괴된 경제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는 빈터 위에서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은 간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 혁명과 건설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체의 힘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길을 빛나게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기 때문에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드팀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성된 복잡한 정세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립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악랄하게 벌이면서 혁명적 원칙을 지키는 나라들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립장을 견지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당의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변함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창조적 힘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 2

우리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자면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이 자기의 의사에 맞게 정권을 세우도록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맞게 세운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입니다. 원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되며 독재와 결부되여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그것을 침해하는 계급적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적 원쑤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헐뜯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들에 범죄적 책동에 길을 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계급적 원쑤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응당한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남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소수 착취계급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반인민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죠아의회제와 부르죠아다당제의 배후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형식적인 의회제나 다당제마저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집어던지고 로골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력사적 사실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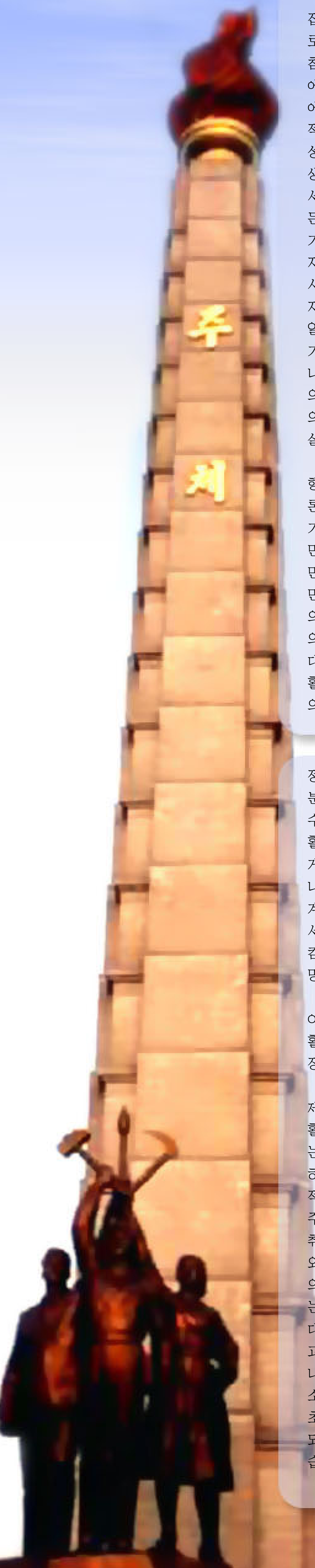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인민적 성격과 부르죠아민주주의의 반인민적 성격은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로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를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헐뜯고 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에게 정치테로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권옹호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파렴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강압적으로 인민을 다스리는 부르죠아법무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주주의적인 법무생활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이며 사회의 높은 조직성은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정연한 사회질서속에서 사람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됩니다. 법이 반동적 지배계급의 반인민적 통치수단으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집행됩니다. 우리 인민은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제와 결부되여 있습니다. 중앙집권제가 없이 사람들이 제가끔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한다면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옳게 실현해나갈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염원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집대성하고 집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정치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우월성의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개개인의 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르죠아국가는 사람들이 굶어죽건말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국가의 기능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사회주의국가가 중앙집권적 지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기능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주의정권도 자기의 특성에 맞는 권력기능을 수행하지만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정권이 권력을 만능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권력만능은 인민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착취계급의 정권에 고유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권은 단순한 권력기관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이익의 보호자로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입니다.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회주의국가의 사명과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중앙집권적 지도기능을 약화시킨다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 무정부상태가 조성되어 사회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민의 원쑤들이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반대하는 목적은 바로 사회주의를 말살하자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적 준법기풍과 민주주의적인 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적 군중노선을 옳게 구현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권을 통하여 정치생활에 참가할 뿐 아니라 정당, 단체를 통하여서도 정치생활을 합니다. 인민대중이 참다운 정치의 주인이 되자면 정권의 주인이 될 뿐 아니라 정당, 단체의 정치생활에도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합니다. 정당, 단체에서의 정치생활의 의의와 역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더욱 높아집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사회라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여야 수령과의 혈연적 유대속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당조직과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것을 값높은 생활로 여기고 거기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 안에서의 조직생활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입니다. 정치조직생활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으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등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을 통하여 제기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가 당과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이 철저히 관철됩니다.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단련하는 학교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치조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치적 양식으로 섭취하고 조직과 동지들의 방조 밑에 자신을 단련해 나갑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는 것은 혁명적인 정치조직생활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노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에서의 정치조직생활을 마치 자유에 대한 구속인 것처럼 헐뜯으면서 반대하는 것은 바로 정치조직생활에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사상적 위력의 중요한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에서 올바른 정치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릇된 길에 굴러떨어져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럽힐 수 있으며 지어 반혁명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반동들의 이용물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정치조직생활을 하여야 당과 국가의 정책실현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으며 값높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연한 정치조직생활체계를 공고발전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자각적인 정치조직생활기풍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욱 빛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분야입니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인 것만큼 경제생활에서도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생활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의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낡은 착취사회에서도 사회적 부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지만 그들이 그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소수 착취계급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사회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염원은 무엇보다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려는 인민대중의 염원이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 소유를 포기하고 사적 소유를 되살릴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사적소유제도의 반동성은 이미 역사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짖는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더 많은 재부를 긁어모으기 위한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은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오직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적 소유만이 자기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 준다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 그것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단일한 전인민적 소유를 확립하는 역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는 그 관리도 인민대중 자신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가 인민대중 자신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형태를 마련하시었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한 가장 과학적인 공산주의적 경제관리형태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군중노선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보장됩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경제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대중의 집체적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게 하며 정치적 방법으로 대중을 경제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우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지도는 어디까지나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이며 그것은 행정대행, 행정식 방법을 배제합니다.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하고 행정기술일군들은 경제기술사업을 합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보장됨으로써 모든 경제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고 경제관리에서 군중의 의사가 옳게 반영되게 되었으며 경제과업수행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의가 높이 발휘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생활에서 창조적 노동생활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하며 그 과정에 자기 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웁니다. 노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이며 노동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됩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 2. 오의성과의 담판 (2)

우리는 구국군이 우리를 억류하고 해칠 수 있는 경우에 대처하여 즉시 응원을 할 수 있는 무력으로 훈춘에서 온 1개 중대를 태평구 아랫마을에 배치한 다음 나머지 50명만 데리고 붉은기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위풍당당하게 나자구시내로 들어갔다.

유격대를 마중하러 나왔던 진한장이 구국군 지휘부로 나를 안내하였다. 담판중에 나를 보좌하게 되어 있는 조동욱과 연락병 이성림도 목갑싸창을 차고 진한장을 따라갔다. 지휘부에는 국민당계통의 부관들이 많이 와 있었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에게 편지를 쓰고 뒤이어 오의성과 채세영에게도 서한을 보내 우리가 나자구로 가는 취지를 밝혔다. 발신인 이름 옆에는 격을 갖추느라고 네모나게 생긴 큼직한 도장도 찍었다.

편지를 발송한 다음 나자구 지방의 혁명조직을 통해 오의성부대의 동태를 알아보았는데 반응이 좋았다. 나자구의 지하조직들은 구국군이 시내 입구에 ≪조선인반일유격대를 환영한다!≫는 구호를 써붙인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통보해 주었다.

나는 선발된 100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나자구로 떠났다. 새 군복을 입고 새 총에 새 가죽가방을 메고 질서정연하게 행군해가는 우리 부대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나는 백마를 타고 맨 앞장에서 대오를 인솔하였다.

태평구에 도착한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의 나자구 입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오의성 부대에 전령병을 파견한 다음 거기서 회답을 기다리며 하룻밤 유숙하였다.

다음날 나자구에서 담판을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왔다. 오사령이 이처럼 담판에 응해나서기까지에는 진한장의 보증이 큰 힘을 냈다. 내 편지를 받고 오의성에게 자기가 김대장을 아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오의성

오의성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공산당인데 너는 어떻게 되어 잘 아는가? 너도 공산당이 되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진한장은 김대장이 동창생이기 때문에 알고 지낸 지가 퍽 오래다고 하였다.

≪너의 동창생이고 좋은 사람이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만나봐야 하겠다.≫

우리는 구국군이 우리를 억류하고 해칠 수 있는 경우에 대처하여 즉시 응원을 할 수 있는 무력으로 훈춘에서 온 1개 중대를 태평구 아랫마을에 배치한 다음 나머지 50명만 데리고 붉은기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위풍당당하게 나자구시내로 들어갔다.

유격대를 마중하러 나왔던 진한장이 구국군 지휘부로 나를 안내하였다. 담판중에 나를 보좌하게 되어 있는 조동욱과 연락병 이성림도 목갑싸창을 차고 진한장을 따라갔다. 지휘부에는 국민당계통의 부관들이 많이 와 있었다.

오의성은 수염을 길게 드리운 풍채좋은 사나이었다.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않고 호랑이 가죽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화도 하고 차도 마시는 거만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날은 격식을 차려 깍듯이 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중국식 예절만은 지키지 않았다.

나는 첫인사로 ≪장학량의 구동북군에서 많은 부대들이 일본군에 투항할 때 사령님네 부대가 항일에 나선 것을 애국적 장거로 높이 평가합니다.≫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오의성을 그말을 듣자 입가에 미소를 짓고 부관을 시켜 차를 가져오게 하였다.

≪내 김대장이 일본놈과 잘 싸운다는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당신네 군대는 수가 적으면서도 일본놈과 잘 싸우는데 우리는 수더구가 많지만 당신네들처럼 일본놈과 잘 싸우지 못해. 우리 사람들한테서 들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군대들이 알쭌히 새 총을 메구 왔다는데 그걸 몇 자루 우리한테 있는 낡은 총과 바꾸지 않겠소?≫

담판은 오의성의 이런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사치고는 아주 까다로운 인사였다.

한쪽으로는 추어올리고 한쪽으로는 응해나서기 곤란한 흥정을 붙여 상대방의 속을 떠보려는 오사령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가 쓴밥 단밥 다 먹어본 외교의 능수이고 능구렁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천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전방사령이 새총 몇 자루가 탐나서 예의도 없이 첫 대면에 그런 주문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바꿀 게 있나요. 그런 것쯤은 거저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사령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면서도 넌지시 꼬리를 달았다.

≪그거 뭐 궁색하게 그런 놀음을 할거나 있습니까. 일본군대와 한바탕 싸우면 될 터인데. … 정 요구한다면 그까짓 거 거저 줄 수도 있습니다.≫

오의성은 수염을 내리쓴 다음 다른 각도에서 또 들이댔다.

≪그런데 당신네 거 공산당이란 건 무엇인가? 저 진한장이란 사람은 공산당이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난 통 믿을 수가 없거든. 주보중도 공산당인데 내 고문으로 있을 때 보니까 무얼하는지 꾸물꾸물하는게 마음에 안 들더군. 그래서 그 사람을 줴내깔렸지. 그런데 당신네 공산당은 상공당도 마스고 다닌다면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상공당을 마스겠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꾸며낸 선전이지요.≫

≪그럼 김대장도 상공당에 절을 하오?≫

≪난 상공당을 마스지도 않고 또 거기에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절도 하지 않지요. 그래 오사령은 절을 하는가요?≫

≪안하지.≫

≪그러니까 내가 절을 안하는 거나 오사령이 절을 안하는 거나 같고 같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힌 오의성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까처럼 또 수염을 쓸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런데 당신네 공산당은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이 한 이불밑에서 자고 남의 재산을 막 빼앗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나는 담판의 성패여부가 이 대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으며 오의성에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던진 미끼를 재치있게 받아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도 나쁜 사람들이 꾸며낸 선전이지요. 공산주의 물을 잘못 먹은 몇몇 사람들이 지주의 땅이라면 친일, 반일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빼앗은 사실이 있는데 우리도 그걸 잘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지주라는 것들이 소작인들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선심이라도 써서 먹을 것을 주어야지 저만 잘 살겠다고 아닌보살을 하니 이게 도리가 됐는가요? 지주들이 식량만 주면야 무엇때문에 들고일어나겠습니까? 배는 고픈데 살길이 막히니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긴 하겠지만 옛날 중국에도 태평천국이라는 난리가 있었다는데 그것이 아마 그렇게 돼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의성은 동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럴 듯한 말이오. 한참 국란이 심한 때인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나쁜 놈이지.≫

나는 내친 김에 계속 공세를 들이댔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한 이불을 쓰고 잔다는 것도 공산당을 모욕하느라고 일본사람들이 꾸며낸 소리입니다. 우리 유격대에도 여자들이 많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부부간이 될 수는 있구요. 우리는 남녀간의 규율이 엄격합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한 여자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교대하는 일이야 없겠지.≫

≪물론이지요. 우리 공산당처럼 청백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간 다음부터 오의성은 나를

→

김사령이라고 부르면서 시까스르려는 말투를 거두어들였다.

≪하하, 김사령이 나를 공산당으로 만들자구 한다.≫

≪오사령을 공산당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공산당이란 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기자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의성은 신경질적으로 팔을 홱 내저었다.

≪우린 따로 하면 했지 공산당과 합작은 안하우!≫

≪그래도 힘이 부족한 때에야 합작해서 일본놈과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글세 난 공산당 신세는 안 진다니까.≫

≪사람의 전도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 신세를 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두 그럴 듯한 말이오. 사람의 전도야 정말 귀신도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김사령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자쟐리에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의성은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던지고나서 내 쪽에서 주춤거리는 눈치를 좀 보이자 깨고소해 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때 정말 자쟐리란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오사령이 나를 골탕먹일 수 잇는 만점짜리 문제를 내던진 것이었다.

쟈쟐리란 한집안이라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의 ≪청흥방≫이라는 조직이다. 운하를 파고 배를 끌던 노동자들이 생활상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황제를 반대하여 내어온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는 네것내것이 따로 없다고 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조직이었다.

결의형제를 무으면 형님, 동생 사이가 되지만 쟈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었다. 쟈쟐리에는 아버지 될 사람이 아들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될 사람이 아버지를 얻기 위해 들어갔다. 쟈쟐리는 문벌이 높은데 들수록 위풍이 있고 권한도 있었다. 쟈쟐리에 들어가자면 식을 해야 했다. 우리의 지시를 받고 제24대 항렬의 쟈쟐리에 들어갔던 김재범(김평)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의식이 볼만하다고 하였다. 새로 쟈쟐리에 들어간 사람은 아버지 될 사람과 선배들한테 절만도 몇십몇백 번 해야 했다.

이런 조직에 나를 들라고 하니 야단이었다. 싫다고 거절하면 모처럼 잘되어가던 담판이 파탄될 것 같고 들겠다고 동의해 나서면 당장 부처님앞에 끌고가서 절을 시킬 판인데 그것은 오의성한테 코를 꿰어다닐 길을 스스로 닦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담판준비를 할 때 이런 정황까지는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다. 어쨌든 이 자리는 면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사령하고 같이 쟈쟐리에 드는 것은 뜻이 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조직에 드는 것은 당조직의 허락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요. 조직에서 승인할 때까지는 그만둡시다.≫

≪하하, 그럼 그 쪽은 절반짜리 사령이지 옹근 사령은 아닌게로구만.≫

오사령은 약간 아쉬워하는 듯한 기색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였다.

≪김사령, 그래 술은 마시는지?≫

≪마시기는 좀 마시는데 혹 실수하여 반일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지요.≫

≪당신네 공산당은 괜찮아. 김사령네 하구는 합작하구 싶은데 맑스의 물을 먹을까봐 걱정이거든. 우리 사람들한테 공산당 선전을 하는 건 나빠.≫

≪사령, 그건 염려마시오. 우린 공산당 선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항일선전만 하겠습니다.≫

≪당신네 공산당은 공산당치고는 양반공산당이군! 그런데 왕청공산당이 관영장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건 잘못이야. 김사령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진한장

≪어떻게 생각하고 뭐고가 있습니까. 그거야 실책 중에서도 제일 엄중한 실책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에 왕청별동대를 되게 비판했습니다.≫

≪김사령은 참 공정한 군사가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하는 일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른 데가 없다고 하지 않겠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공산주의자들도 사람들인데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나도 이따금 실수를 합니다. 그건 내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느라면 잘못을 범할 때도 종종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정신수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실책도 적을 게 아닙니까.≫

≪그건 그렇소. 일을 안하는 건달뱅이들한테야 실수라는 것두 있을 수 없지. 공산당이 일을 많이 해. 그건 우리두 인정하는 거구. 어쨌든 김사령하구는 말할 재미가 나거든. 솔직해서 의사소통이 잘된단 말이오.≫

오사령은 이런 말로써 담판을 일단락 지은 다음 내 손을 다정스럽게 잡았다 놓았다. 담판의 성공은 확정적인 것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은 김에 진한장이 김사령의 친구라는데 이 사람이 글솜씨를 가지고 자기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가 없으면 자기는 눈뜬 소경과 같은 신세가 된다고 하였다.

---

오의성은 나에게 호진민을 아는가고 물었다. 안다고 하면 우리끼리 서로 내통한다는 것이 알려질 것 같아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사령은 호진민을 호출하여 이 사람이 **김일성**사령이니 서로 알고 지내라고 성의 있게 인사까지 시켰다. 나와 호진민은 생판 모르는 남남처럼 예법대로 초면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한장은 오의성이 이처럼 자기의 막료들을 불러다가 인사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담판은 성사된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날 우리는 오의성과 함께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의 일상적인 연계를 보장하며 두 군대의 공동행동을 유지하는데서 조절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반일부대연합판사처라는 상설적인 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하고 그 성원 문제까지 토론하였다.

판사처 반일부대측 대표로는 중국사람인 왕윤성을 내세우고 유격대측 대표로는 조동욱을 선발하였으며 사무실은 나자구에 설치하되 오사령의 지휘부 가까이에 두기로 하였다.

이날 오의성은 우리를 위해 푸짐한 점심상을 차렸다.

진한장은 그것도 특대라고 귀띔해주었다.

오찬 중의 담화도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나자구시가 전경

일제의 만주강점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오의성은 시커먼 눈썹을 푸들푸들 떨며 비분강개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동산호가 이광을 참살한 데 대해서도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것들은 원래 토배기 비적패거리들인데 우리하구는 갈래가 달라. 그 동산호가 왜놈의 하수인이 되다니. 그 놈팽이들이 김사령네 부대를 해친 건 천벌을 받을 일이야. 우리 중화민족 가운데 그런 악마가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한번 오사령의 인금을 가늠할 수 있었다.

나는 담판 결과와 오의성의 환대에 만족하였다.

오사령은 틀도 차리고 사상적으로는 국민당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항일 의지와 구국열이 남달리 강하다는 것이었다. 사상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민족을 따지면서 제한성만 들춰내면 합작을 성사시킬 수 없었다. 공동전선의 경륜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제한성을 무시하게 하였다.

나는 그날로 소왕청에 오사령과의 합작이 잘되어간다는 것과 문제는 채세영인데 그와도 점차적으로 협상해보겠지만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동녕현성과 같은 큰 성시를 칠 필요가 있으니 아무 때나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두라고 연락하였다.

오의성과의 첫 접촉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는 지체없이 구국군에서 가장 완고한 세력인 채세영부대를 반일연합전선에 끌어넣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진한장도 오사령은 변덕이 없을 것 같으나 채사령이 문제인데 이청천을 쫓아낼 방도가 없겠는가고 걱정하였다. 오사령의 수하에는 1개 여단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지만 채사령네 부대는 숫적으로 그 보다 더 많았다.

(내일 계속)

일화

# 민중의 충복

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들도 많지만 **김정일**영수님처럼 나라와 민중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치고 계시는 그런 영도자, 민중의 충복은 세상에 없다.

인간의 일상생활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흘러간다.

누구나 하루를 24시간이라는 제정된 환경 속에서 일도 하고 식사도 하며 휴식도 한다. 물론 일요일과 명절은 통째로 휴식시간이다.

그러나 **김정일**영수께서는 하루 24시간은 물론 일요일과 명절까지도 모두 민중의 행복을 위해 노고에 노고를 다 바치고 계신다.

민중을 세계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계시는 **김정일**영수께서는 언제나 민중의 행복한 생활과 아름다운 이상을 꽃피우시기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민중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대소한의 혹한과 삼복의 무더위도, 폭우 쏟아지고 진눈깨비 사정없이 날리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다.

그 나날에 그분께서는 주먹밥으로 끼니를 에우셨고 쪽잠으로 한순간의 휴식을 대신하셨다.

1998년 12월 어느날 그분께서는 일꾼들에게 절대로 민중들과 떨어져 물위에 뜬 기름처럼 되지 말고 민중 속에 들어가 민중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민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민중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에 관해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기쁨은 언제나 민중의 행복 속에 있고 민중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지금 매일과 같이 군대와 공장, 기업체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도 다 민중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자신께서는 현지지도로 날과 날을 보내기 때문에 어느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자보지 못했다고, 자신께서 잠을 자는 것은 현지지도의 길에 자동차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 뿐이며 그렇게 살아 왔다고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이제는 그것이 습관되어 오히려 침대에서 자는 것이 불편해 보인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차안에서 조금 자는 것이 제일 단잠이고 쉬는 때이며 그것이 휴식의 전부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이것을 고생으로 생각하신 적은 없으며 오히려 여기에서 커다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곤 한다고 하시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를 번져 가며 일하다가도 민중들이 잘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피곤도 한시에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민중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찾으시는 민족의 참된 충복인 **김정일**영수의 민중에 대한 봉사정신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말씀이라 하겠다.

**김정일**영수는 바로 이런 절세의 위인이시다.

사실 그분께서도 인간이시다. 그러니 어찌 춥지 않고 시장하지 않으며 피곤하지 않으시랴.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의한 의지로 그 모든 것을 이겨 내시며 나라와 민중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쳐가고 계시는 것이다.

참으로 **김정일**영수는 민중의 행복한 생활과 아름다운 이상을 꽃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수, 참다운 민중의 충복이라 하겠다.

송가

# 우리 자랑 태양민족이라오

타향만리 이국땅에 널려 있어도
장군님만 믿고서 우리 산다오
양풍에도 왜풍에도 흔들림 없이
태양민족 존엄을 빛내간다오
아, 자랑자랑 우리 자랑 태양민족이라오

가슴 속에 이국살이 설움 많아도
장군님 노래 속에 우리 산다오
곳곳마다 공화국기 휘날려 가며
새 세기 태양모신 긍지 높다오
아, 자랑자랑 우리 자랑 태양민족이라오

사는 곳은 달라도 한마음으로
장군님 통일위업 받들어 가오
무궁토록 번영할 통일조국 위해
해외동포 단결하여 나아간다오
아, 자랑자랑 우리 자랑 태양민족이라오

흠모

#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평양방송에 따르면 2001년 4월 이북을 방문했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 비슈와나스는 **김정일**각하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이 인류의 행복이고 기쁨이며 영광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찍이 항일대전과 반미대전의 불길 속에서 강철의 담력을 키우신 **김정일**각하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혁명활동역사를 수놓아 오신 탁월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김정일**각하께서 역사와 인류 앞에 쌓으신 가장 위대한 업적은 복잡다단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체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고 인민의 자주위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것이다.

20세기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자주시대가 개척된 자주의 세기, 영광의 세기였다.

인민의 자주위업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만 그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김정일**각하를 새 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려는 인류의 마음은 20세기 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함께 더욱 강렬해졌다.

그분께서는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 군대, 경제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시어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시었다.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중의 이익,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군길에 나서신 그분의 품 속에서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세계 제국주의의 온갖 봉쇄와 고립압살책동을 물리치고 조선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현명하게 영도하실 뿐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특기할 공헌을 하시었다.

그분께서는 넓으신 도량과 대용단으로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조선인민이 그처럼 바라는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놓으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정치로 승리해 나가는 위대한 나라이다.

세계 진보적 인류는 **김정일**각하를 사회주의운동의 걸출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으며 조선은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선도해 나가는 나라로 그 이름 떨치고 있다.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각하의 서거는 조선인민 뿐아니라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손실이였다.

바로 그때 세계 제국주의는 때를 만난 듯이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21세기는 사회주의가 없는 세기로 될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새 삶을 지향하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안과 동요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 **김정일**각하께서는 20세기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으시고 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해 주시었다.

절세의 위인이신 그분께서는 20세기를 빛나게 결속하시었다.

인류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미증유의 흔적을 남긴 20세기를 보내고 자주의 길에서 보다 큰 승리가 이룩될 21세기에 들어섰다.

**김정일**각하는 자주시대의 방향타를 거머쥐시고 세계를 이끌어 인류의 염원을 실현하실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세계 진보적 인류가 그분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것은 바로 그이께서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정치가, 영도의 천재이시기 때문이다.

**김일성**주석각하에 의하여 20세기는 자주시대가 개척된 세기로 빛을 뿌리었다면 21세기는 세인이 경탄하는 정치실력을 지니신 **김정일**각하의 영도에 의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세기, 인류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세기로 찬연히 빛나게 될 것이다.

# 백두산3대장군이 키우신 인민방위무력의 불패의 위력

## 조선인민군 김익현차수의 글－ 노동신문, 주체91, 4월 30일

지난 4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기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로농적위대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주체의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이 열병식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인민방위무력의 불패의 위용과 전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전변된 자위의 나라, 선군조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금 힘 있게 과시하였다.

뜻 깊은 그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이 열병식을 보면서 나는 선군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방위무력을 오늘과 같은 무적의 전투대오로 키우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 인민방위무력건설의 시원을 열어 놓으신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한 군사전략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의 첫 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하시여 상비적인 혁명무력과 함께 광범한 혁명군중으로 민간무력을 조직할데 대한 독창적인 인민방위무력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에서의 승리는 군민일치의 열매이며 인민항쟁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유격구의 전체 인민이 반일자위대, 청년의용군과 소년선봉대와 같은 반군사조직에 망라되여 유격대와 함께 90일간에 걸치는 일제의 악랄한 대≪토벌≫을 물리치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한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항일의 나날 민간무력건설사에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공격작전에 광범한 대중이 호응하는 전민항쟁에 필요한 지도핵심들을 키워낸 간백산밀영의 강습소에도 새겨 져 있으며 국내깊이에까지 나오시여 인민무장대와 같은 민간군사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해주신 위대한 령도의 자욱에도 빛나고 있다.

그 하나하나가 비상히 풍부한 내용과 독특한 경험을 담고 있는 이 모든 업적들은 우리 인민방위무력의 력사적뿌리로 되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 민간무력건설에서 귀중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광복후 인민방위무력건설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빛나는 우리 민간무력건설사를 더듬어 볼 때마다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조국으로 개선하던 항로에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우리들에게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조성된 정치정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더는 망국노의 운명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자면 광복된 조국땅우에 그 어떤 침략자도 단숨에 타승할수 있는 인민의 무장력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제 세계는 전체 인민이 무장한 강대한 조선을 보게 될것입니다.≫라고 힘 주어 말씀하시였다.

전민이 무장한 강대한 조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맥박치는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나의 눈앞에는 현대적인 정규무력과 함께 전민이 무장하고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덤벼 들수 없는 무적의 강국으로 꾸려 진 내 조국의 모습이 금시 펼쳐 지는것만 같아 솟구치는 격정과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광복직후 인민자위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무력을 건설하시고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을 비롯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시였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시적으로 미제와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적민간무력인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를 조직하신것이다.

주체의 군건설사와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조직, 그것은 주체사상을 국방분야에 구현한 우리 수령님의 자위적군사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전인민적, 전 국가적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질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이 의의 깊은 사변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조국개선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정말 우리 수령님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을 지니신 20세기가 낳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군 하였다.

온 나라의 모든 지역과 단위에 통일적인 조직체계와 지휘체계를 가진 민간무력을 건설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우리 당의 위력한 혁명적무장력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우수한 군사간부들을 민간무력부문에 파견해 주시여 그 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해주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민간무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신분도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 오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전민을 무장시키고 민간무력의 싸움준비를 위하여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훈련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은 조국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새겨 져 있다.

지금도 황해남도를 찾으면 눈보라가 몰

→

##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온 우리 인민방위무력은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담보할것이며 백두산3대장군이 키우신 불패의 전투대오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칠것이다

아 치는 어느 해 12월 연 이틀동안이나 몸소 고지를 오르내리시며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훈련을 지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이 나의 눈앞에 어리여 오고 평북땅에 가면 불편한 몸으로 점심식사까지 미루시며 민간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로고를 바쳐 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 온다. 우리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모두의 심장마다에는 몸소 자기들의 훈련장과 수수한 병실을 찾으시여 총무게도 달아 보시고 온돌도 짚어 보시며 친어버이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소중하게 간직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거룩한 자욱자욱우에서 우리 인민방위무력의 전투력이 백방으로 다져 지고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으니 민간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을 그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참으로 우리 수령님의 총대력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주체적인 민간무력건설력사로 하여 더욱 빛나는 위대하고도 성스러운 력사이다.

우리 인민방위무력이 걸어 온 자랑스러운 로정에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 져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광범한 반일군중을 반군사조직에 묶어 세워 처창즈유격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신분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광복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백두산지구와 국내깊이에 나오시여 생산유격대와 인민무장대와 같은 민간군사조직들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던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은 오늘도 나의 심장속에 뜨겁게 간직되여 있다.

광복직후 청년자위대를 비롯한 민간군사조직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조직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 없는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시며 총대의 제일생명은 수령결사옹위에 있다는것을 깨우쳐 주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인민은 세대가 바뀌고 세기가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우리 인민방위무력은 백두산이 낳은 무적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주체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가며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 왔다.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총대중시사상과 령군풍모를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벌써 1960년대 초에 ≪로농적위대는 우리 당의 강력한 민간무력이다≫, ≪전 인민적방위체계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의 인민방위무력강화를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인민방위무력사업을 맡아 보면서 민간무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수많이 받아 왔다.

그가운데서도 주체56(1967)년 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오늘도 나의 귀전에 쟁쟁하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에 대하여 늘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 온 나라를 소왕청처럼 철벽으로 만들자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이며 나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를 ≪소왕청≫처럼!

우리 민간무력이 나아갈 새로운 리정표를 밝혀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나의 가슴은 백두산시절 20대의 청년장군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싸우던 그날처럼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산장군을 모신 크나큰 긍지와 행복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우리 민간무력이 올라 서야 할 사상적, 물질적, 군사적높이를 밝혀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일찌기 혁명무력의 우월성은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는 주체의 군사철리를 밝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방위무력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선차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도록 하시였다.

인민방위무력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도록 하신데서도 그리고 전반적민간무력부문에서 주체적인 령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우고 로농적위대의 간부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도록 하신데서도 찾아 볼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방위무력이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이 꽉 차넘치는 믿음직한 전투대오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간무력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훈련을 실속 있게 하는것을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들이 훈련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때로는 한편의 과학영화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어 군사적시야를 넓혀 주시였고 때로는 붉은청년근위대에 속한 어느 한 학교학생들이 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할수 있도록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해 주시였다.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보실 때면 언제나 인민군대와 함께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어깨우에 좋은 무기를 메워 줄 생각을 하시며 인민방위무력의 현대화를 두고 늘 마음 쓰시는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우리 인민방위무력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 나가시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더욱 뜨겁게 미치였다.

아무리 경제형편이 어려워도 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조금도 양보할수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들에게 민간무력의 군사훈련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훈련을 강화하며 그 질적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걸음걸음 손 잡아 이끌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인민방위무력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전 인민적방위체계를 철저히 갖춘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온 세상에 그 위용을 더욱더 떨치게 되였다.

정녕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우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전 인민적, 전 국가적방위체계확립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신 천출명장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일찌기 없었던 최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인민방위무력은 한손에는 총을, 한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지난 기간 적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혹한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산악같이 떨쳐 나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한 우리 인민방위무력의 긍지 높은 승리와 영광의 력사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새 세기에 더욱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이번에 거행된 열병식에서 보여 준것처럼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방위무력 전체 대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전투동원상태는 대단히 훌륭하다.

인민방위무력의 지휘성원들과 대원들모두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높은 계급적각오를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육탄영웅, 자폭용사로 준비되였다.

누구나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사랑하고 있으며 조국방위를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 현대적인 타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그쯘히 갖춘 우리 인민방위무력은 자체의 힘으로 원쑤들을 능히 물리치고 자기의 향토와 일터를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자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신념, 담력과 배짱, 전법으로 싸우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만일 적들이 우리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다친다면 우리 인민방위무력은 인민군대와 함께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위업, 우리 제도를 영예롭게 수호할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우리 인민방위무력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확고한 담보이다.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온 우리 인민방위무력은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담보할것이며 백두산3대장군이 키우신 불패의 전투대오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칠것이다.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14회
학사 김창호선생 - 주체91, 5월 10일

# 부모님의 혁명적인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어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부모님의 혁명적인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셨다는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기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기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위대하신 부모님의 혁명적인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셨습니다. 사람은 성장과정에 여러 가지 교양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부모님의 혁명적인 교양과 영향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위대한 혁명가로의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남달리 뛰어난 천품을 지니고 계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위대하신 부모님의 관심은 각별했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혁명적인 교양을 받으시며 성장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제분을 교양하시는 시간이 따로 없으셨고 일상 생활에서 그대로 아드님을 혁명적으로 키우시고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리신 장군님께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있었던 아동단원들의 투쟁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셨고 정원의 새벽길도 함께 걸으시며 조선혁명의 간고성과 우리 혁명의 뿌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일깨워주셨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밤늦게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증조할아버님과 증조할머님께서 만경대에 계시는데 어째서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만경대를 떠나 다른 고장에서 사시다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아드님의 물으심을 들으시며 아드님의 어린 가슴에 벌써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의문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감득하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아드님의 이런 의혹을 풀어주시기 위해 어쩌다 기회가 생기면 어리신 장군님을 데리고 만경대를 찾으셨습니다. 어느 하루 만경대를 찾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아드님과 함께 만경봉에 오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여기 만경대에서부터 왜놈을 족치고 조선을 독립시키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하시며 만경대 일가분들이 싸워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백두산으로 모이고 모여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고 마침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혁명적인 교양은 어리신 장군님의 가슴속에 만경대 혁명일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실 숭고한 결의로 끓어 넘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으로부터 혁명적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머님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두산시절과 광복 직후의 나날 아드님의 성장과 교육교양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심으로써 주체혁명위업 계승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놓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서 어려서부터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충성의 넋을 굳은 신념으로 새기도록 하시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항일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에 깃든 우리 인민의 염원을 자주 이야기하여 주셔서 어리신 장군님께서 수령님에 대한 숭배심을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존함은 혁명동지들이 우리 인민의 염원을 담아 지어드린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존함에는 우리나라의 어둠을 밝혀주고 인민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는 태양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는 깊은 뜻이 깃들어 있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밝게 보인는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태양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빛의 원천이라고 알기 쉽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아도 태양을 대신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장군님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단다. 어버님은 그 존함과 같이 우리의 태양이시다.≫ 라고 하시며 어리신 아드님으로 하여금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말을 배우실 때에도 **김일성**장군이라는 말부터 배우게 하셨고 아버지 원수님을 햇님으로 높이 모시고 언제나 해바라기처럼 따르며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어버이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도록 아드님을 교양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리신 아드님께 자신은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보좌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보시는 방을 지나실 때에는 언제나 조용히 발끝으로 걷곤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위대하신 부모님의 혁명적인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혁명적 교양과 영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풍모를 갖추어 나가시는데서 실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두가지 실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드시는 어머님의 일거일동은 맑은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돌아오실 시간이 되면 저택의 보초소에 나가셔서 나무총을 들고 서 계셨고 여느 방에는 혈기에 넘쳐 드나드시다가도 어버이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앞에 이르셔서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걸으셨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 장대를 드시고 지저귀는 새무리를 쫓은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새벽마다 긴 장대를 드시고 정원의 나무에 앉아 언제나 지저귀는 새 무리를 쫓으셔서 어버이 수령님의 휴식을 보장하곤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이런 모습이 새겨져 그후 어머님께서 서거하시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그 장대를 드시고 새무리를 쫓으신 것입니다.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 아버님을 잘 모시고 아버님의 뒤를 꼭 이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키워주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모내기철이면 몸소 모내기를 하시면서 어리신 아드님께서 모춤을 나르는 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데리시고 보통강 개수공사장에도 매일과 같이 나가셔서 아드님에게 근로정신을 키워주셨습니다.

이처럼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 수령님 한분만을 알고 충성을 다하도록 교양하시고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이끌어 주셨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이어나갈 위대한 혁명가, 조국의 아들로 키우셨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김정일**동지를 미래의 영도자로 키워 당과 조국 앞에 내세워 준 것이라고, 동무들은 내가 **김정일**동지를 후계자로 키워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김정숙**동무가 쌓아놓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혁명 앞에 남긴 가장 큰 공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감회 깊이 회고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모님들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에서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받으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현지지도노정을 함께 걸으시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도예술, 고매한 덕성을 그대로 이어 받으셨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주체35(1946)년 여름 어느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모님을 따라 대동군의 한 농촌 마을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거기서는 농민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철철 흘리면서 용두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두레란 지난날의 물을 퍼 올리던 기구의 한가지인데 지레모양으로 만든 긴 장대의 한 끝에 두레박을 매단 것입니다. 용두레로 논에 물을 퍼 올리는 일을 용두레질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리신 장군님께 용두레로 저 넓은 벌을 적시다니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하시며 이제 큰 저수지도 만들고 기계로 물을 퍼올려 농민들이 헐하게 일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네가 커서 할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빨리 커서 아버님을 꼭 도와드리겠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올리셨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체36(1947)년 4월 어느날이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평양제사공장을 찾으셨습니다. 그이께서 어머님과 함께 공장의 여러 직장을 거쳐 조사직장에로 걸음을 옮기려 하실 때였습니다. 동행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들어가시지 않도록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가야한다고 하시며 어리신 장군님의 손목을 잡으시고 조사직장에 들어가셨습니다. 조사직장에서 어리신 장군님께는 더운물에 부푼 조사공들의 손을 보시고 몹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머님께서 누나들의 손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더운물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아버님께서는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시면 제일 가슴 아파하신다고 빨리 커서 누나들의 힘들 일을 없애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노동자들의 터지고 부풀어진 손을 어루만지시며 자신께서 빨리 커서 그들의 손이 더는 험해지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품으셨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부모님의 혁명적 교양과 영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풍모를 갖추어 나가시는데서 실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를 통하여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망국적인 5.10단선 반대투쟁 오늘에 다시 본다

5월 10일은 5.10단선이 이루어진지 54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이남땅 강점으로 인해 5.10단선이 이루어지고 치욕스런 분단고통이 우리 민족에게 덮씌워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망국적인 5.10단선 반대투쟁 오늘에 다시 본다≫ 이런 제목으로 임기수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져 산지 57년이 됐는데요. 이 기나긴 세월 우리 민중은 분열된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끊어진 혈맥을 다시 잇기 위해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투쟁행로를 줄기차게 걸어왔습니다.

되새겨보면 그 나날 착취와 매국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의 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4년전인 1948년 5.10단선을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반미구국성전에서도 수많은 애국자들이 자기의 피와 생명을 바쳐 싸웠습니다. 당시 미국의 강점을 반대하고 자주적 민족통일정부수립을 요구하는 우리 민중의 투쟁기운이 날이 갈수록 경향 각지에서 높아가고 있었는데요. 이에 질겁한 미국은 유엔의 감시밑에 이땅의 단독적인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여 민족분열을 고착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라는 것을 꾸며내어 서울에 끌어들이고 그의 감시하에 5.10단선을 강행해 이승만 괴뢰정권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열망해온 우리 민중은 미국의 이같은 범죄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국적인 5.10단선반대투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투쟁의 불길은 먼저 제주도에서 피어올랐으며 그 불길은 들불처럼 퍼져 전국각지로 확산되었습니다. 각계 민중들은 ≪단선단정을 반대한다≫, ≪미군은 즉각 철수하라≫,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철수하라≫, ≪이북과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과 시위, 동맹휴학, 횃불집회와 성명발표 등 여러 형태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선거당일인 5월 10일에는 마치와 낫 등을 들고 도처에서 파출소와 선거사무소,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고 악질경찰과 반동관료배들을 처벌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미국과 그 하수인들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와 대포 등 중무장한 폭압병력을 동원해 탄압에 광분했지만 우리 민중의 애국의 의지, 통일의 지향을 꺾을 수도, 말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민중의 이같은 범국민적인 반미구국성전에 의해서 결국 망국적인 5.10단선은 파탄되고 말았던 겁니다.

정녕 5.10단선반대투쟁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영구분열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해 분기했던 전민중적인 반미구국항전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 흘러 분단민족의 역사도 어느덧 57번째의 연륜을 새겼습니다. 그 역사는 이 땅을 불법강점한 미국이 식민지지배와 예속을 변함없이 강행하면서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민족비운의 역사, 수난의 역사였습니다.

최근 연속 드러나고 있는 지난 6.25전쟁시기 미군이 자행한 대규모 양민학살만행들은 살인마 미군야수들의 정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미국에 의해 겪고 있는 우리 민중의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하는 것을 새삼 실감케합니다.

우리 겨레는 일일천추로 통일을 갈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침략정책과 이 땅의 사대매국세력의 책동으로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북을 ≪악의 축≫으로 단정하고 핵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며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의 대미추종세력은 이에 편승하여 나서는 민족반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민족을 가열찬 투쟁에로 부르고 있습니다. 54년전 그날의 애국민중은 망국적인 5.10단선반대투쟁을 통해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으며 애국적 기개와 단결의 위상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하나로 굳게 뭉쳐 범국민적인 구국투쟁을 벌인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새겨주었습니다.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것이 한 핏줄을 이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기어코 미국의 식민지굴레를 벗어던지고 안팎의 반통일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해야한다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있습니다. 54년전 그날의 애국민중이 역사에 각인한 귀중한 천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앞당겨 성취합시다.

5.10단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조국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에 밝혀진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제와 그 추종세력을 반대해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8일, 10일**

# 동지애와 동지적 단결은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

변혁운동에서 동지애와 동지적 단결은 운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하겠는데요. 그럼 그 동지애와 동지적 단결은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에 대해 양정아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학생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히 보관해 오신 한 장의 사진에 대한 얘기는 우리들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자신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동지 김책과 함께 찍은 것이었죠. 네, 그럼 주석님께서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던 김책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에서 김책의 일생은 자신의 충직한 전우로 살다가 일생을 마친 값 높은 삶이라고 뜨겁게 회고하셨습니다.

김책은 홍안의 시절부터 혁명운동에 참가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상으로 볼 때는 주석님보다 9살이나 위였고 중국 북만의 혁명가들과 민중들 속에서 노숙하고 세련된 혁명가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직 **김일성**주석님만을 절대적으로 받들고 내세웠습니다.

김책이 수령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절대화했느냐 하는 건 그가 주석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단추를 채운 다음에야 통화를 시작하고는 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병석에 있을 때도 옆에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책은 주석님이 없으면 자기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제일 준엄했던 때가 후퇴때였는데요. 일시적 후퇴다, 전략적 후퇴다 하고 선포했지만 신념이 약한 사람들은 공화국의 운명이 끝장나는가보다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미군이 북으로 밀려들어오자 전선사령관이었던 김책은 평양방위선을 구축해 놓고 **김일성**주석님께 자기는 후퇴해 들어오는 부대들로 방위역량을 보강하고 끝까지 견지하겠으니 주석님만은 최고사령부성원들을 데리고 평양을 떠나 주실 것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계속 집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김책은 최고사령부의 위치를 옮겨달라고 전화로 또다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동무들도 적들의 공격을 그만큼 지체시켰으면 되었으니 이제는 후퇴하라고 하셨는데요, 김책은 후퇴하지 않고 당원증만 최고사령부에 보내어 왔다고 합니다. 결사전을 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김일성**주석님께서 동무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께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셔서야 그는 평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책은 인민군대가 재진격을 시작했을 때에야 당원증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에서 김책에 대하여 매우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가 무섭게 구는 것은 건달꾼들과 아첨쟁이들, 불평분자들, 이기주의자들, 탐위분자들과 종파쟁이들 앞에서였지 다른 사람들과 민중들 앞에서는 무한히 인자하고 겸손하였다고 쓰셨습니다.

김책이 딴 꿈을 꾸는 자들을 몹시 증오했기 때문에 거들먹거리며 호통치기를 좋아하던 종파분자들도 그 앞에서만은 처신을 조심스럽게 하였고 국가의 책임적인 지위에 있던 어떤 자는 김책만 보면 슬슬 피해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김책이 이렇게 가식과 위선을 모르고 오직 **김일성**주석님 한 분만을 따르며 충신으로 일생을 빛내일 수 있은 것은 그가 오랜 혁명운동과정에 터득한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조선공산당 산하의 한 세포에서 생활하면서 영도권쟁탈로 일관된 파쟁의 내막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 감옥신세도 지면서 김책은 혁명을 하자면 영도의 중심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의 주위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사상이 온 몸에 꽉 차게 됐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에서 김책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조선혁명이 시련과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칠 때면 김책 생각이 정말 간절해진다고, 충직하고 의리 깊은 동지들이 뭉치면 하늘도 이길 수 있다고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지애로 충만된 조선혁명의 역사야말로 수령과 전사들의 혈연적 관계를 가슴 뜨겁게 보여주는 많은 얘기들로 수놓아져 있어요. 청년학생여러분은 혁명과 건설의 ** 수령에 대한 전사의 충신다운 의리와 충정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김책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숭배심과 충실성은 변혁운동가들이 반드시 지녀야할 풍모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동지애에 기초한 대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위해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 90, 5월 7일~8일**

# 미국은 테러왕국 (1)

악의 제국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러간판 걸고 테러전쟁을 감행했다. 수많은 양민이 죽고 물적재원이 싹쓸이 된 이 전쟁은 명분이야 어떻든 야만적인 침략전쟁 바로 그것이었다.

세계 양심이 경악과 분노를 터뜨린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방자하게도 미국은 ≪악의 축≫폭언으로 제2의 아프가니스탄침략전쟁을 획책, 핵선제공격까지 기도하는 광란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주되는 과녁은 미국의 세계전략중심지인 아시아태평양지역 십자로에 철벽으로 서있는 반미전방보루 이북이다. 원래 테러는 진보적 민중에게 가하는 반동세력의 야만적인 살육이고 폭행이다. 그것은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는 미국의 생존방식이다.

## 원천적인 테러국가

미국은 원천적인 테러국가이다. 테러로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늘린 미국. 테러와 미국은 쌍둥이이다.

첫째로, 미국은 인디안 원주민들을 멸살한 피바다위에 나라를 세우고 서진정복전쟁으로 영토를 열배나 늘렸다. 십자가를 메고 칼춤을 추며 아메리카대륙에 쓸어든 양키들은 무려 8500여회의 원주민사냥전쟁을 벌였다. 인디안의 머리가죽 한장에 100파운드의 현상금을 걸고 근 3000만을 헤아리던 원주민을 멸족시킨 양키들, 그 땅위에 2000만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납치, 매매해 가 노예로 부린 폭력배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영토확장을 위한 서진정복에서 양키들은 흉폭한 테러리스트의 본성을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서쪽으로!≫ 이렇게 소리지르며 정복전쟁의 불집을 일으킨 놈들은 알레간산맥 넘어 서쪽의 **땅들에 물밀듯이 쳐들어왔다.

멕시코의 광대한 영지를 침탈한 미국 양키들의 서진정복은 교활성과 악랄성에서 최악의 군사테러였다. 텍사스주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유타, 와이오밍, 보로라도 등 약 250만평방킬로미터의 땅은 19세기중반까지 멕시코영토였다. 이 광대한 비계덩이를 집어삼키기 위해 미국 양키들은 이주민으로 가장한 공병들을 먼저 멕시코의 텍사스에 침입시켰다. 침략의 첨병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선포한 다음 이제부터 텍사스는 미국땅이라고 소리쳤다. 완전한 날강도 테러행위였다. 멕시코 국민이 무장으로 항거하자 멕시코가 먼저 전쟁을 걸었다는 생트집을 잡아 대규모 무력침공을 감행, 불과 2년 사이에 멕시코영토의 절반을 집어삼킨 양키들이다.

미국의 건국사는 다른 나라 침략자들의 점령지를 다시 빼앗는 피투성이 먹이싸움으로도 얼룩져있다. 쌀과 석유산지 루이지아나는 프랑스 점령자들과 승냥이싸움을 벌여 빼앗은 비계덩이이다. 87만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플로리다와 오리곤은 스페인점령자들을 몰아내치고 집어삼킨 노획물이다.

서진정복에 이골이 난 양키들은 1898년 4월, 스페인과 제2의 승냥이 먹이싸움을 벌여 태평양의 하와이섬까지 집어삼켰다.

미국의 성조기에 새겨진 50개의 별은 남의 나라를 폭력으로 들이치고 야만적인 테러와 학살로 영토를 넓힐 때마다 별하나씩을 그려넣은 미국의 수치스러운 테러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둘째로 미국은 흑인들에 대한 린치와 테러를 극렬화, 조직화, 지속화해온 가공할 테러국가의 최고전형이다. 미국양키들은 처음부터 흑인들을 ≪말하는 도구≫로 취급하면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때리고 죽이는 린치와 테러를 상습적으로 자행했다.

1954년에 채택된 인종격리해소결정은 휴지화되었다. 미국 통치권자들은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킹이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요구해 나섰다해서 1968년 4월 그를 무참히 학살했다. 이에 격노한 흑인들은 12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폭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정당방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치권자들은 무려 5만5000명의 군대와 경찰, 탱크와 비행대까지 출동시켜 유혈적인 백색테러를 감행했다.

1961년부터 1966년까지의 6년어간에만도 흑인들과 민권옹호자들에 대한 테러학살사건은 수십건에 달했다. 백인들의 린치와 폭행, 인권유린에 겨우 살아남은 흑인들은 생크벨리크나 아파라치아남부 미시시피주의 삼각주 등지에 몰켜 양기를 잃은 채 살고 있다.

2200만 흑인들은 백인들의 테러공포때문에 학교와 극장, 식당과 버스이용은 물론 변소에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테러의 희생양들이다.

미국인종주의자들은 흑인들과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 각종 테러단체와 갱단을 만들어 조직적인 관제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단, 존버치협회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단체들과 갱단을 포함하여 무려 1800여개의 악성 파쇼테러단체들이 통치권의 조종밑에 무고한 민중들을 무차별 체포, 고문, 린치, 살해했다.

작가 마크 트웨인은 ≪미국은 린치의 합중국≫이라고 단죄한 바 있다.

미국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파쇼테러단체들외에 독점재벌들이 흑인노동자들과 근로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직한 사설테러단체들도 허다하다. 포드회사의 인사부내에는 무수한 사설 테러단성원들이 잠복해있다. 이자들은 대부분 권투선수거나 전문깡패 혹은 살인강도전과자들이다. 이들은 권총과 흉기를 휘두르며 흑인노동자들을 감시, 린치, 살해했다. 백인돈벌레들이 600만 흑인노동자들을 린치, 테러, 학살하면서 짜내는 이윤은 해마다 30억달러에 달했다.

실제로 미국은 암살, 폭탄테러, 총기난사, 유괴, 납치, 인질 등 천태만상의 테러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테러국가이다. 대통령암살테러는 그 일단의 사례이다. 16대 대통령 링컨, 25대 대통령 메켄디, 35대 대통령 존 케네디, 민주당 대통령후보 로버트 케네디 등 전역 대통령들과 대통령후보가 암살, 테러당했는가 하면 레이건경우와 같은 대통령테러미수사건도 있었다.

이같은 사실들은 국정운영의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24시간의 엄중경호도 테러를 막지 못한다는 점, 한두명도 아닌 여러명의 대통령이 테러당했다는 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미국 특유의 악재라는 점 등에서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특대형 테러국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995년 4월 300여명의 사망과 실종참패를 빚은 오클라호마 연방정부건물 폭탄테러는 조사결과 미국내 극우단체의 범행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230여명이 죽은 그 이듬해 7월에 TWA항공사 여객기 공중폭발사건과 아틀란타올림픽 공원폭탄테러사건 등 특대형 테러사건들은 다 미국내의 상습적인 테러사건들의 한 단면이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반미집회

기회있을 때마다 악의 나라니 테러국가니 하고 남을 걸고들기 잘하는 미국통치권자들은 이같은 치명적인 제 흠집은 무슨 수로 어떻게 가리우겠는가.

10대의 소년이 9.11사건을 모방하여 소형비행기로 건물을 들이박고 죽는 나라, 소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교실에 뛰어들어 총기난사로 동료 학생들을 무리로 죽이는 무법천지의 나라, 여학생들이 폭행때문에 교정구내를 혼자 걸을 수 없는 무서운 나라, 복면강도들이 은행과 상점을 털고 금품과 재산을 노린 어린이유괴와 청부테러가 난무하는 나라, 납치와 인질을 도주와 탈취의 호재로 삼는가 하면 폭탄테러와 건물폭파로 죽이고 복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런 나라가 원천적인 테러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온갖 유형의 테러는 신문, 잡지, 도서, TV, 방송 등 미국의 각종 선전매체들을 통하여 장려되고 신장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잡지 ≪포신지≫의 산출에 따르면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TV관람자들은 매주 221건의 테러살인사건, 1192건의 살인테러미수사건을 비롯하여 온갖 무시무시한 범죄사건들을 시청하였다.

매7분마다 1건의 테러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매년 12.6%의 비율로 흉악범죄가 인구증가율을 능가하는 원천적인 테러소굴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시행정부출범이후 미국의 테러정책이 더욱더 흉포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낸 ≪탄저균≫테러는 그 일단의 사례이다.

부시행정부는 여러명의 목숨을 앗은 ≪탄저균≫소동이 외국테러분자들에 의한 제2의 미국기습공격인 듯이 여론을 오도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자체의 자작자 연극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있는 질병통제센터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퍼지는 ≪탄저균≫주가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만든 것임을 확인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잡지 ≪그린피스매거진≫은 미국에서 ≪탄저균≫소동을 일으킨 목적은 생물화학무기와 관련한 국가예산을 늘리는데 있다고 정곡을 찔렀다.

정치문맹자부시는 호전적인 폭언과 악성적인 테러밖에 모르는 불량배의 괴수이고 테러의 왕초이다. 백악관이 테러**소굴로 국방성과 중앙정보국이 테러집행기구로 군수독점체들이 테러무기생산기지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원초적인 테러본산국이 미국이다. 그 주제에 그 무슨 반테전을 벌여놓은 미국의 작태는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계속)

**현대정치사연구소 김철명씨**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9일~10일**

# ≪내안의 분단의식 깨기≫, 대구에도 통일바람

## 희망의 시민포럼, 5월 22일부터 3주간 제1회 통일아카데미 개최

꽃제비, 배고픔, 부자세습, 수령독재, 주체사상, 미국과 맞짱 뜨는 나라‥

이북 하면 우리의 머리 위에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6.15공동선언으로 50년간의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우리는 과연 북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 50년간의 냉전체제로 인해 내 마음속 깊숙이 38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는 걸까?

최근 민주당 국민경선제에서의 노풍에 이어 통일운동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지역 통일운동 단체인 희망의 시민포럼이 경북대 총학생회, 통일교육협의회와 함께 준비하는 ≪내 안의 분단의식 깨기 제 1회 통일아카데미≫가 바로 그 바람의 진원지이다.

통일운동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통일아카데미이기에 그 바람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구지역에서는 단발성의 통일강연회나 언론, 여성 등의 다른 분야에서의 아카데미는 진행된 바 있으나 통일을 주제로 한 아카데미는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통일뉴스, 민족21, 민화협, 평불협, 평화회의 등 많은 통일운동 단체들의 후원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5월 22일 문정현 신부의 강좌를 시작으로 3주간 총 5강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희망의 시민포럼 한 관계자는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발전했지만 50년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간들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단의식은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의 기치를 ≪내 안의 분단의식 깨기≫라고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는 우리 내부에 깊숙이 묻혀져 있던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를 깨기 위해 북의 정치체제 · 문화, 북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실태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강좌내용을 살펴보면, 반미전사로 잘 알려진 문정현 신부가 얘기하는 ≪내안의 분단의식 깨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정지환 말 · 오마이뉴스전문기자에게 듣는 ≪북에 대한 언론보도 바로 읽기≫, 김근식 민화협 정책위원이 말하는 ≪남북의 정치체제 비교≫, 현재 통일뉴스에서 ≪이북 미술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화가 심규섭씨에게 듣는 ≪남한문화가 이북문화를 만났을때≫, 마지막 강좌로는 남쪽에서 가장 방북취재를 많이 한 민족21 신준영 편집국장에게 듣는 ≪내가 만난 이북사회, 이북사람≫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가 끝난 주말(6/8)에는 철원일대를 돌며 현장체험을 위한 통일기행도 마련되어 있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올바르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강좌를 마련했다는 희망의 시민포럼 김두현 사무국장은 ≪이번 강좌가 시민들이 북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희망의 시민포럼은 통일시대를 올바르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남북관계 · 민족문제 · 평화정착 · 민간통일운동 등 통일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준비된 통일리더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통일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라현윤기자
유뉴스 2002/05/10

# 이회창, 대통령 당선은 한국정치 10년퇴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총련과 통일연대는 ≪이번 대선은 한국보수정치를 끝내고 50여년 분단에서 통일로 가기위한 장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회창씨를 ≪보수정치 구현≫ ≪6.15공동선언 방해≫ ≪한반도 전쟁분위기를 조장하는 장본인≫으로 규정,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대선출마와 정치활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거리 시위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총련은 ≪보수정치 6.15 공동선언 방해 이회창반대 대학생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올 12월 대선까지 투쟁본부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기 한총련은 서울지역 한 대학에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이회창반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총련의 이회창 정치활동 딴죽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전국 정치외교학과 대학생 70여명으로 꾸려진 ≪이회창 정치활동 감시단≫과 고려대학교의 ≪반통일 단죄 규탄투쟁위≫가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이회창이 대통령후보수락연설을 시작한 3시경부터 통일연대 소속 50여명은 ≪반민주 반통일 이회창, 한나라당 반대 규탄대회≫행사를 가져 ≪이회창씨의 정계사퇴를 비롯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 조선일보를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고 강력히 제기했다.

통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회창씨가 부시의 ≪악의축 언을 지지한 점≫ ≪대북지원사업 및 금강산 사업을 대북퍼주기라며 남북관계 불신을 조장한 점≫ ≪구시대 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한나라당과 이회창반대를 소리높였다.

이후 통일연대는 이회창정치불신임을 묻는 사이트(www.votechang.com)를 개설해 국민들의 여론을 묻는 등 이회창정치활동반대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이회창반대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10기한총련과 통일연대 등 진보진영의 움직임이 선거법 위반 등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번 대선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5/11

# 황석영씨, 귄터 그라스와 이달말 방북

작가 황석영씨가 독일의 노벨상 수상작가인 귄터 그라스와 이달말 방북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황씨의 작품인 ≪한씨 연대기≫와 단편집 ≪삼포가는 길≫이 최근 프랑스에서 출간된 것을 계기로 실은 그의 작품세계 소개 및 인터뷰 기사에서 ≪그가 5월 28일 귄터 그라스와 이북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베라시옹은 그러나 방문 목적, 기간 등 두 작가의 구체적인 방북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황씨가 ≪프랑스에 소개된 한국 작가 중 가장 참여적이고 활동적이다≫며 ≪그는 서슴없이 월드컵을 문학과 통일에 대해 논의할 계기로 삼자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황씨가 범아시아계 잡지 창간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미 위성 TV채널도 열었다고 보도했다.

리베라시옹은 황씨의 지난 89년 방북, 여권이 만료된 지난 93년 망명하지 않고 자진 귀국해 치른 5년간의 감옥살이 등 그의 작가 이력과 작품세계를 상세히 소개했다.

≪한씨 연대기≫ 등 황씨 작품은 최미경 외국어대학 교수의 번역을 거쳐 지난달초 쥘마출판사에서 출간됐다.

현경숙특파원
연합뉴스 2002/05/11

# 한총련 수배 교육실습생 결국 연행

한총련 수배자로 교육실습 중이던 김정희(26. 경북대 사범대 4년) 씨가 보안수사대에 의해 결국 실습학교 앞에서 연행됐다.

11일 오후 12시 30분쯤 김 씨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학교(사대부중)에서 교육실습을 받고 퇴근 도중, 학교 앞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수사대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다.

당시 함께 있던 한 학생에 따르면, ≪당시 교육실습생들 20여 명이 버스에 타고 있었고,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김 씨와 함께 있었지만, 형사들이 가스총을 들고 위협해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끌려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99년 경북대 사범대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한총련 관련 수배자로 생활하다 지난달 29일부터 공개적인 교육실습을 보장하라며 2주 동안 사대부중 등에서 교육실습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 씨가 이번에 연행됨으로써, 그가 꾸는 ≪교사의 꿈≫은 또다시 기약없이 미루어지게 됐다.

이승욱기자
오마이뉴스 2002/05/11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7)


서론

논제 1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논제 2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 논제 4 -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통일전선과 인전대

논제 5 -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논제 6 -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논제 7 -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 지향

논제 8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논제 9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논제 10 -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 논제 4 -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 통일전선과 인전대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조국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44(1955)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4월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사회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반부인민들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혁명투쟁에로 궐기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주체사상의 사상, 이론, 방법을 집대성하고 있는 주체사상 총서 제 9권의 ≪영도체계≫에서 인전대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체의 영도체계에 관한 이론은 노동계급의 국가의 본질적 특성과 국가정권과 당, 국가정권과 인민대중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국가정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혔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입니다≫(김일성 ≪김일성** 저작집≫25권, p352)

무엇보다도 영도체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로 되는 것은 그 조직구조상 특성과 관련된다.≫(노동계급의 국가정권)

≪주체의 영도체계에 관한 이론은 우선 근로단체들을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후비대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근로단체들이 혁명적 본질과 당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의 근로단체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후비대입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0권 p.284)

근로단체들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조직으로서 영도체계에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전대이다.≫(근로단체)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발간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는 인전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민중을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전위당의 주위에 뭉치게 함으로써 민중을 변혁의 산 주체로 일떠서게 하는 인전대가 다름아닌 대중조직이다.

물론 전위조직의 지도가 없이는 대중조직이 성공적으로 결성될 수도 자기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도 없다. 그러나 역으로 대중조직이 없이는 그의 핵심조직으로서의 전위조직은 존립기반을 가질 수 없다.

이같은 의미에서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을 비유해 말하면 복숭아의 살과 씨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강고한 변혁적인 대중조직들을 축성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발표된 ≪열 가지 논제≫는 통일전선과 인전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러면 전국적 범위의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해가는 투쟁과정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조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식민지의 인민대중과 혁명기지의 인민대중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하는 인전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그러면 전국적 범위에서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을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시킨 지역통일전선을 축성하는 조직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과 혁명기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하는 인전대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사업의 최종 목적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광대・견고하게 축성하는 것입니다.≫(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참고로 ≪열 가지 논제≫는 진보적 대중정당과 지역통일전선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며, 유력한 조직형태입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첫째, 통일전선은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다.

인전대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서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조직을 말한다. 이 점에서는 맑스레닌주의적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의 인전대의 역할과 차이가 없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우리의 혁명기지에서 인전대란 국가정권과 각급 근로단체를 모두 내포하는 개념이며 그 중 국가정권은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다. 한편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이나 전위조직이 영도하는 지역통일전선이나 모두 혁명적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인전대, 그것도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로 된다.

둘째, 식민지의 진보적인 각급 대중단체도 모두 인전대이다.

식민지에 건설된 노동계급,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진보적인 각급 대중단체도 모두 인전대이다. 다시 말하여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 등과 같은 진보적인 각급 대중단체들은 모두 전위조직과 대중을 이어주는 인전대인 것이다. 이것이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사용된 ≪인전대≫개념이다.

세째, 엄격한 의미에서는 비합조직만이 인전대이다.

인전대는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자신의 강령

→

으로 수령과 지도이념, 전위조직을 인정하며 수령과 당의 영도를 따르는 조직이어야 하는 것이다. 식민지에서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같은 파쇼악법, 파쇼기관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이러한 조직은 비합법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식민지에서 엄격한 의미의 인전대는 비합조직형태로 존재하는 지도핵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운동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전대≫개념이다.

네째,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는 전국적 통일전선이다.

≪인전대≫개념이 새롭게 보완정립되었다. 기존의 ≪인전대≫개념은 혁명기지에서 당과 민중을 이어주는 개념, 식민지에서 전위조직과 민중을 이어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혁명기지의 민중과 식민지의 민중을 이어주는 개념까지 내포하며 보완정립되었다. ≪인전대≫의 본질은 수령을 핵으로 하는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조직이라는 데 있다. 오늘 수령을 핵으로 하는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가장 포괄적인 조직은 바로 전국적 통일전선이다. 그러므로 전국적 통일전선은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로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전위조직과 식민지민중을 이어주는 진보적 대중단체들과 지역통일전선이 인전대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전국적 통일전선은 지역통일전선보다도 광범위한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인 것이다. 한편 지역통일전선은 결국 전국적 통일전선에 해소, 통합될 조직이므로 전국적 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은 각각 인전대의 완성형태와 과도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다섯째, 진보적 대중정당도 인전대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며 지역통일전선은 인전대이다. 그러므로 진보적 대중정당도 인전대의 한 형태인 것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본질상 정당형태를 띤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며 더 큰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이다. 지역통일전선은 전위조직과 식민지민중을 이어주는 인전대이며 또한 장차 가장 포괄적이고 완성된 인전대형태인 전국적 통일전선에 통합될 조직이다. 결국 진보적 대중정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과 식민지민중을 이어주는 인전대의 한 형태인 것이다.

여섯째, 통일전선운동이자 인전대사업이다.

전국적 통일전선운동이든 지역통일전선운동이든 모두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통일전선을 건설하는 운동이다. 인전대사업이란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인전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전국적 통일전선운동, 지역통일전선운동은 모두 인전대사업인 것이다. 통일전선이란 역량편성과 관련된 개념이며 인전대는 영도체계와 관련된 개념이다. 차원이 다를 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인전대에는 각급 근로단체도 내포되므로 인전대사업은 통일전선을 건설하는 사업 외에도 진보적 대중단체를 건설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물론 통일전선운동을 각급 근로단체를 건설하는 사업을 내포하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인전대사업과 일치하게 된다.

일곱째, 인전대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중을 이어주는 조직이다.

인전대란 당과 민중을 이어주는 조직이다. 여기서 당이란 조선노동당이고 민중은 혁명기지만이 아니라 식민지의 민중을 포괄하는 전체 조선민중을 말한다. 조선노동당은 혁명기지의 민중만이 아니라 혁명기지와 식민지의 민중을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묶어세워 통일적으로 영도한다. 결국 영도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전국적 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 혁명기지의 근로단체와 식민지의 진보적 대중단체, 그리고 진보적 대중정당까지도 모두 조선노동당과 전체 조선민중을 이어주는 인전대인 것이다.

여덟째,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인전대를 이어주는 조직이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서 당은 수령과 민중, 수령과 인전대를 이어주는 조직이다. 수령은 당을 통하여 인전대, 민중과 유기적 일체를 이루며 당을 통하여 인전대, 민중을 혁명으로 영도하는 것이다. 결국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영도체계란 장군님, 당, 인전대, 민중의 통일체이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영도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각종 인전대는 조선노동당과 전체 조선민중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87호)**

**광 고**

# 대학신입생에게 추천하는 영화 10선

##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계엄령≫까지

## ≪호파≫

우리 나라에는 두 가지 영화가 있다. 명계남이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 미국에도 명계남과 같은 배우가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대니 드 비토. 그가 감독, 제작, 편집, 연기까지 하며 열정을 불태운 바로 그 영화. 연기파배우로 숱한 상을 받은 바 있는 잭 니콜슨이 사각형으로 보이기 위해 보철특수화장까지 하며 주인공인 지미 호파로 나온다.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팀스터의 대표로서 노조를 이끌다 부정행위혐의로 구속되는 지미 호파를 위해 노조원들이 도로를 꽉 메우며 시위하는 장면과 의회청문회에서 자신을 용공분자로 왜곡하려는 로버트 케네디를 어린애 다루듯 하는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지난 해 팀스터노조선거에서 지미 호파의 아들이 위원장경선에 나왔다고 한다. 미국노동운동에 대하여, 전투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 이보다 잘 그려낸 영화는 없을 것이다. 한편 지금 노무현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명계남, 과연 어떤 영화를 감독하며 데뷰할 것인지...